

구조는 빛의 증여자이다. 연결된 가둠을 필로로 하는  
구조의 질서를 선택할 때, 이러한 질서는  
광, 무광, 광, 무광, 광, ... 과 같은 리듬으로  
표현된다. 마침내, 볼트와 돌이 빛의 성질을 선택한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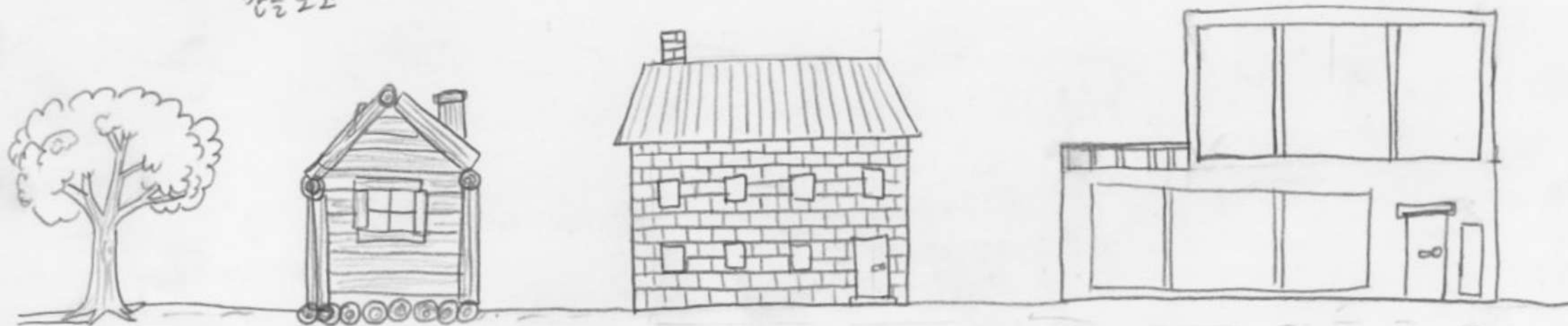
- 침묵과 빛/34.P -

"산업혁명은 건축가와 건설과정을 분리시켰고,

재로는 그 자체의 특별한 성질을 상실하게 되었다." - 침묵과 빛 / 67.P -

칸은 건축을 통해 과거와 접촉해 이집트,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역사적 건축이 서양 건축의 뿌리를 만든 만큼  
그때의 건축은 인간제도와 건축의 첫 시작에 가까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근대건축보다 생명력 있다고  
느꼈다. 과거의 건축은 재료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, 그 재료는 직접 자연에서 나왔고, 인간의 항구적  
의지를 통해 건축으로 변형된 것이다.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재료와 자연의 관계가 멀어졌고 이로 인해  
현대에는 자연재료 자체를 표현하는 건축이 줄어들었다. 칸은 이 재료들의 생명력을 우리 세대의 건축에  
다시 심으려고 했다. 이렇게 나는 근대건축에서 잃은 것을 배워려는 의지와 자신의 디자인을 건물에  
적용시키는 건축의 디자인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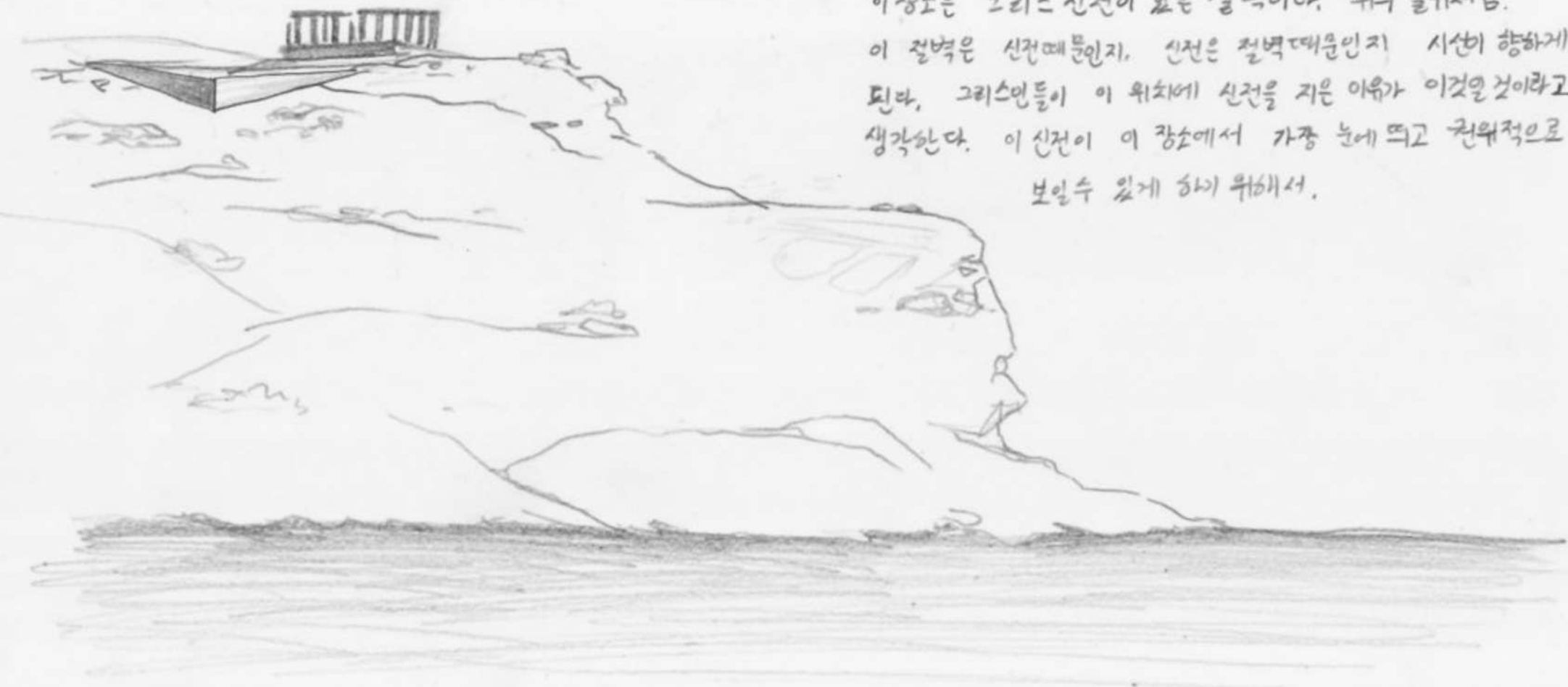
칸을 보고



"당신은 찬미받는 이 건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 
어떤 언덕에도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."

- 침묵과 빛 / 30.P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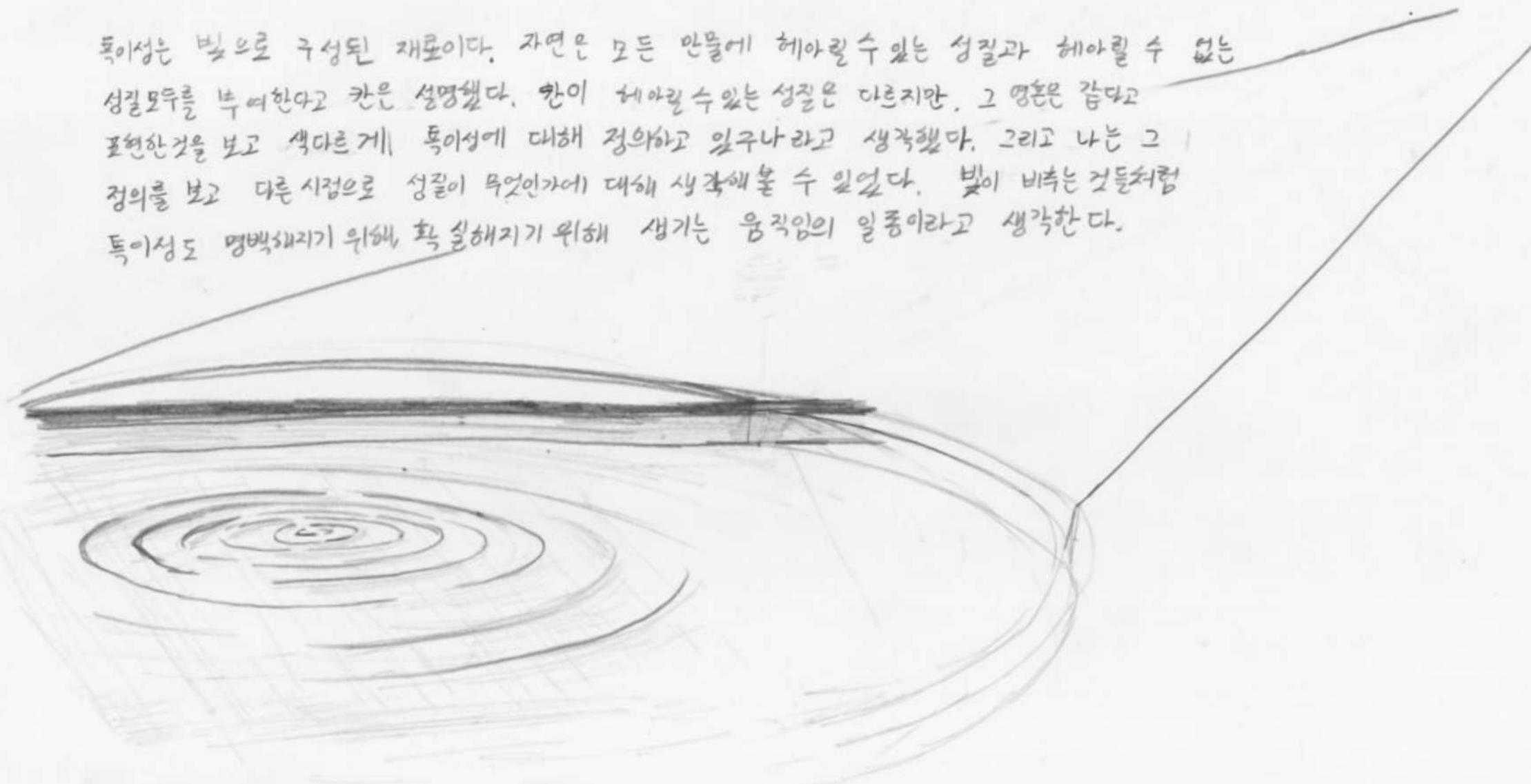
이 장소는 그리스 신전이 있는 절벽이다. 위의 글귀처럼.  
이 절벽은 신전 때문인지, 신전은 절벽 때문인지 시선이 향하게  
된다. 그리스인들이 이 위치에 신전을 지은 이유가 이것일 것이라고  
생각한다. 이 신전이 이 장소에서 가장 눈에 띄고 권위적으로  
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.



"특이성은 침묵으로부터의 움직임이다"

"빛은 명백해져온 것들과 함께 하는 명백해지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뵈는 것이다." - 침묵과 빛 / 24.P -

특이성은 빛으로 구성된 재료이다. 자연은 모든 만물에 헤아릴 수 있는 성질과 헤아릴 수 없는 성질 모두를 부여한다고 칸은 설명했다. 한이 헤아릴 수 있는 성질은 다르지만, 그 명분은 같다고 표현한 것을 보고 색다른게 특이성에 대해 정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. 그리고 나는 그 정의를 보고 다른 시점으로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. 빛이 비추는 것들처럼 특이성도 명백해지기 위해, 확실해지기 위해 생기는 움직임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.



“자연의 모든 재료, 즉 산과 시냇물,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 
모든 것들은 소모되어온 빛에 의해 만들어졌다.”

- 침묵과 빛 / 22.P -

나는 디자인에서 빛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.  
왜냐하면 빛이 모든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은 빛을 통해  
물체가 우리에게 인식될 때 그제서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 
때문이다, 그래서 빛은 모든 존재의 바탕이다. 라는  
칸의 말이 가장 인상깊었다. 빛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 
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 요소 이니까.



"벽이 나뉘어지고 기둥이 될 때," - 침묵과 빛 / 42.P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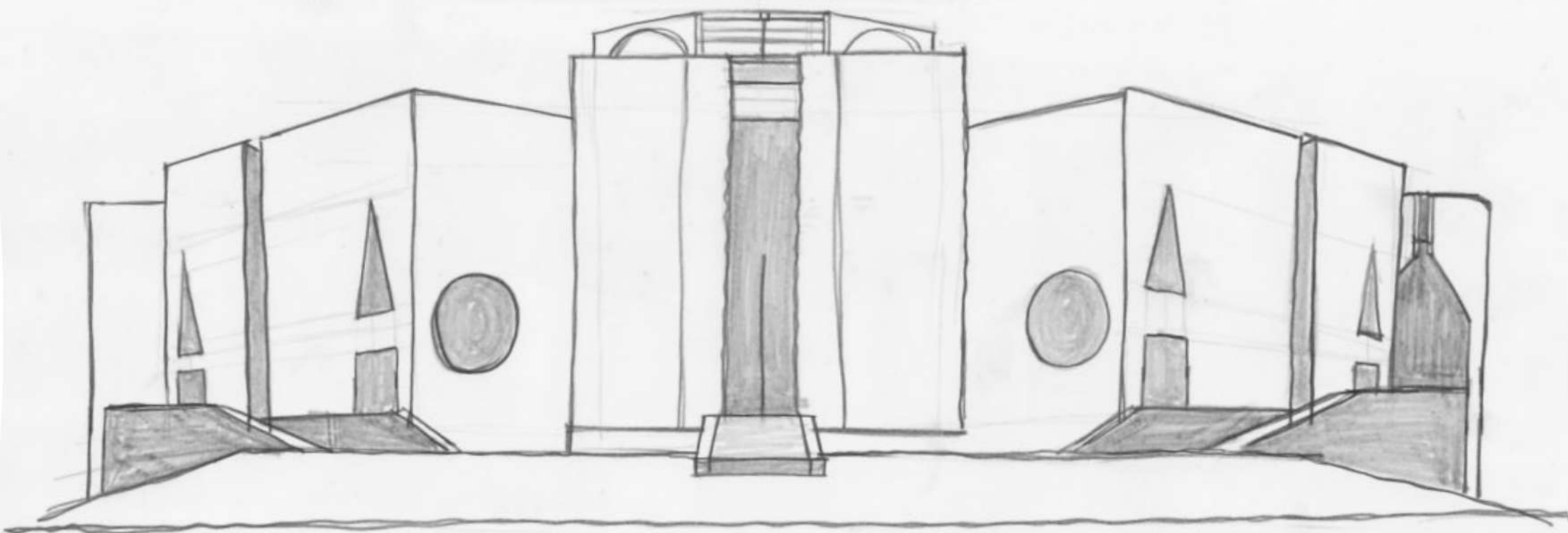
나는 당신이 안전하게 느끼도록  
해주었는데 ---, 지금 당신은 내  
몸에 구멍을 내고 있다고!

하지만 나는 멋진 관경을  
보고 싶어, 밖을 내다보고  
싶단 말이야.

--- 그렇게 이 둘은 타협점을 찾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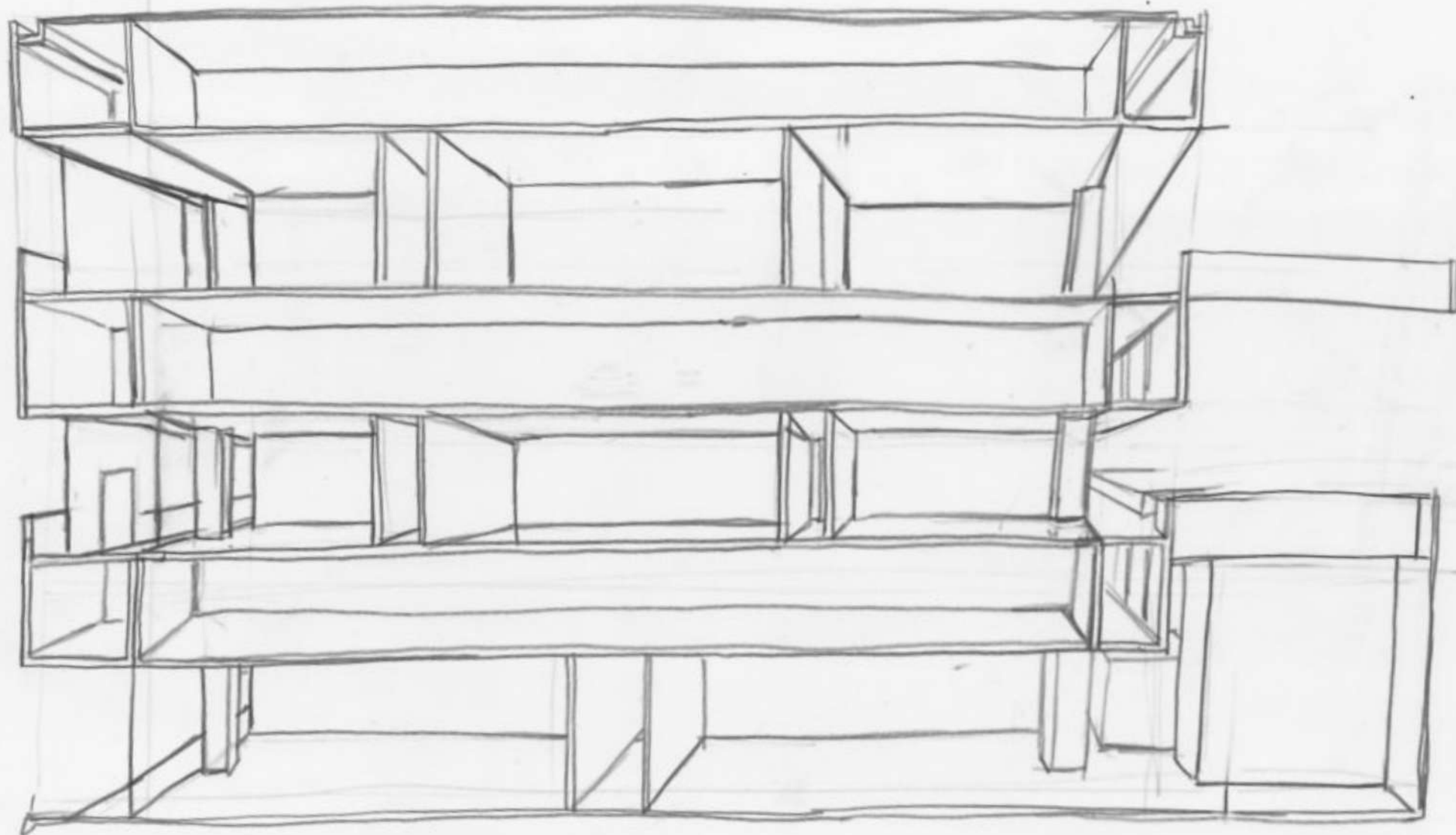
국회의사당, 세어 - E - 방글라 - 나가르 - 침묵과 빛 / 90.P -

인상깊었던 건축물이다. 정치가들을 위한 장소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 
제도를 상징화 해 국회의사당 출입구를 마치 회교 신전처럼, 3만평방피트의  
기도실을 출입구처럼. 또한 거대한 홀은 자연광으로 조명을 만들고  
건물에 대한 제도와 건물간의 관계를 신경써서 만들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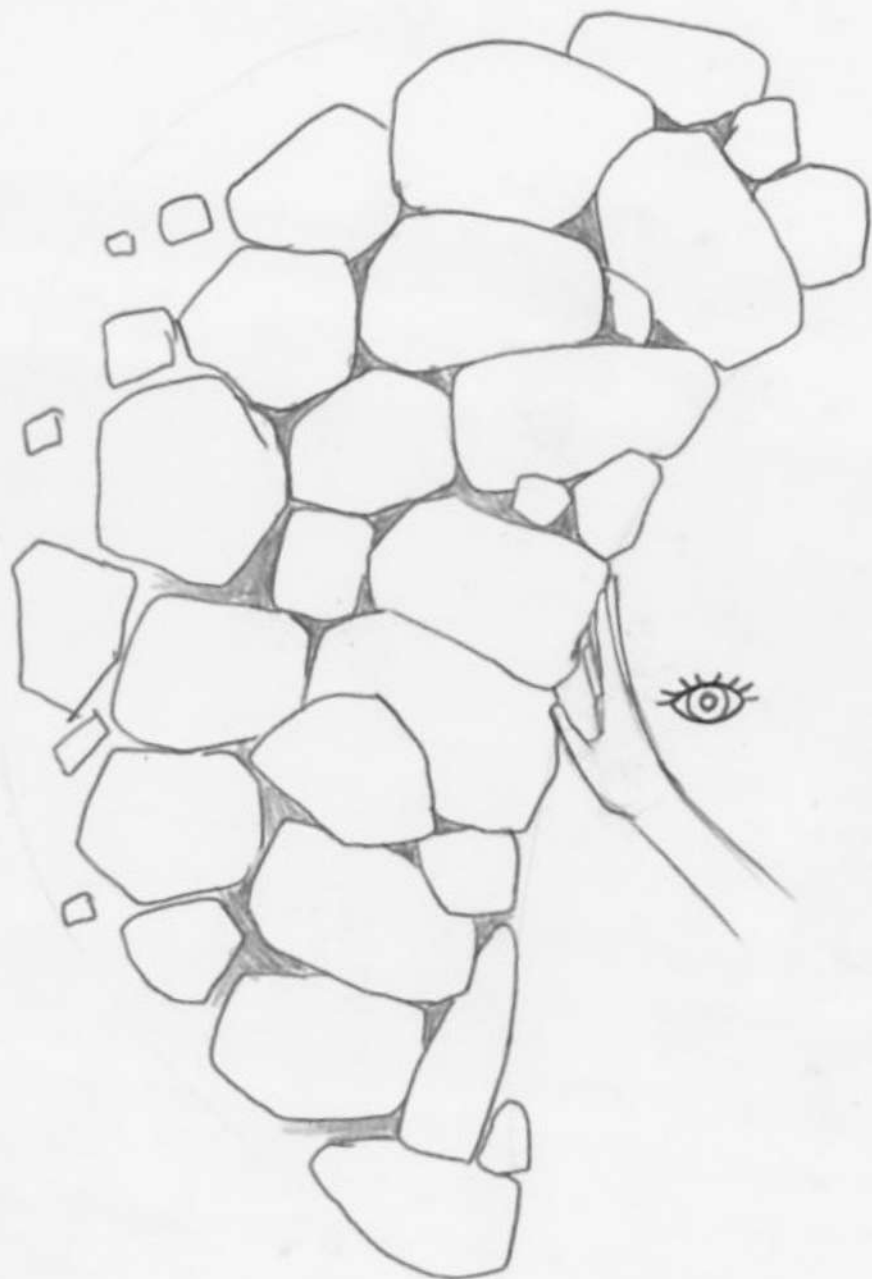


솔크 생물학 연구소

-침묵과 빛 / 76.P.







"촉감은 단순히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며, 이것은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발전된다"

- 침묵과 빛 / 8.P -

시각각은 전체적인 조화를 극각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 모든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사물에게서 어떠한 느낌을 받을 때가 시각각의 시작이다. 이 책에서 모든 감각 중 첫 번째 감각은 촉각이다 라고 말하는데 열리는 일지만 나는 시각이 먼저라고 생각한다. 여전히, 촉각이있기에 보고자하는 것이 아니고, 보았기에 만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고 여긴다.

김태근 미술 박물관  
-정육과 94.P-

